

## <시, 우리도 쓸 수 있다 - 현대의 구술성과 문자성>

영어 영문학과

2012\*\*\*\*\* 송정진

서론:

이번 학기 <해-기호와 사유> 수업은 나의 대학생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강의였다. 나의 전공이 영어영문이고 내가 4학년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해 타 전공 생들 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언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오산이었다. <해-기호와 사유> 강의는 언어에 대해 더욱 깊고 학술적인 수준의 사고를 필요로 했다. 그동안 강의 속에서 듣던 학자들이 쓴 책을 직접 읽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의 생각과 관점에 나를 대입 하는 경험을 했다. 강의를 듣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언어란 정말 대단한 존재’ 그리고 ‘언어란 너무나 익숙해서 인지 하지 못했던 존재’ 였다. 언어란 소쉬르가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표’와 ‘의의’가 자의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언어는 월터 J.옹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술성과 문자성을 동시에 갖는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할 때 조지 레이코프가 『삶으로서의 은유』에서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개념과 필요한 대상을 은유로 연결시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한다. 나는 이중에서 월터 J.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을 읽고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월터 J.옹은 책에서 <sup>1</sup>문화의 단계를 [구술· 청각적 단계 → 문자의 단계 → 전파의 단계] 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현대 사회에 적용이 되는지 매우 궁금했다. 요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종류의 언어를 접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요즘 인터넷 상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는 몇 개의 시들을 구술성과 문자성을 바탕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기로 했다.

---

<sup>1</sup> 월터 J.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언어의 구술성과 문자성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자 한다.

- 구술성 : <sup>2</sup>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구술성이란 2차적인 구술성이다. 월터 J.옹은 Kleine & Gale 과의 인터뷰(1996)에서 “내가 처음 제 2의 구술성이란 용어를 사용했을 때 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얻는 구술성을 생각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의 구술행위는 특히 집단에 연설을 할 때 가공되지 않은 인간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제 1의 구술성과 어느 정도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새로운 종류의 구술성이 만들어진다. 여기서의 구술성은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기술적으로 동력을 받고 음성을 재생하는 기계를 고안하고 만드는 데 문서나 다른 기술의 사용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제 2의 구술성이다. 따라서 이들은 제 도구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제 1의 구술성과 다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기술화한 구술성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현대의 커뮤니티 혹은 SNS서비스가 ① 즉각적인 질문과 대답이 가능하다는 점, ② 사람들의 글쓰기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점, ③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이 개방된 매체라는 점에서 제2의 구술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 문자성 : <sup>3</sup> 문자성이란 말을 공간에 멈추는 일 혹은 언어가 문자의 형태로 소통될 때 지니는 성질을 의미한다.

본론 :

요즘 인터넷 상에는 젊은이들이 만든 시들이 한창 유행 중이다.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은 문학가가 아닌 이상 시를 읽지도, 시를 쓰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는 분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글이었고 시인들만의 창작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그 양상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음이의어, 운율 혹은 시적 허용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손쉽게 시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장난처럼 보였지만 점점 이러한 종류의 시를 쓰는

---

<sup>2</sup> 월터 J.옹 - Kleine & Gale 과의 인터뷰(1996)

<sup>3</sup> 월터 J.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p. 17, 150~157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람들이 쓰는 시는 난해한 시가 아닌 한번 읽으면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이다. 길어도 길지 않고 어려운 문학적 표현이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투로 시를 썼다. 주제도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사물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문학가들 혹은 문학비평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시의 문학을 망가뜨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문학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시는 읽는 것이 아닌 읽히는 문학이 된 것이다. 현대의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매체와 언어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고 사람들 또한 이러한 매체와 언어의 융합된 것들을 매우 자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현대는 제 2 구술성의 시대이다. TV 나 인터넷 등의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즉각적으로, 구술성을 지닌 언어로 이루어져 구술성이 강화된 것이다. 즉, 1 차적인 구술성과 비교해 보면 2 차적인 구술성은 문자와 말이 융합된 경우가 많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시들은 앞서 말한 2 차적인 구술성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자성과 구술성이 결합되어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에 유행 중인 시들은 다음과 같다.

<p>1. 닭</p> <p>너를 처음 봤닭</p> <p>빨개진 내 얼굴은 양념통닭</p> <p>보고싶닭</p> <p>내가 너를 좋아하나 보닭</p> <p>콩닭 콩닭</p>	<p>2. 오렌지</p> <p>고백을 받아본게 얼마나 오렌지</p> <p>솔로로 살아온게 얼마나 오렌지</p> <p>친구로 지내온게 얼마나 오렌지</p> <p>혼자서 좋아한게 얼마나 오렌지</p>
<p>3. 봄</p> <p>너를 처음 봄</p> <p>내 얼굴 봄?</p> <p>난 너만 봄</p> <p>봄이 오나봄</p>	<p>4. 여름</p> <p>지금 계절은 여름</p> <p>더워서 창문을 여름</p> <p>넌 내 마음을 여름</p> <p>근데 넌 왜 네 마음을 안여름?</p> <p>그렇꺼면 왜 내 마음은 여름?</p>

5.    덜 익은 삼겹살  
 내면을  
 바라봐  
 외모에  
 속지마

6.    같은 옷  
 왜  
 하필 이 곳에  
 왜  
 하필 당신이

7.    지옥철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이곳에

8.    맛집  
 내가  
 다른 걸까  
 내가  
 속은걸까

제시된 시들은 요즘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는 시들이다. 이 시들이 가진 구술성과 문자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앞선 1~4번의 시들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인터넷 문자와 말이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음이의어’라던지 ‘운율’이라던지 문어체와 구어체를 적절히 혼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했다. 그리고 5~8번의 시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을 운율에 맞춰 표현했다. 이 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술성은

A. <sup>4</sup>리드미컬하고 균형 잡힌 패턴이거나 반복이나 대구거나 두운이나 유운의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

- 실제로 1~4번의 시들은 제목에 쓰인 단어와 관련한 테마를 잡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구어체로 재치있게 표현했다. ‘2번 오렌지’ 시의 경우 ‘오래되었는지’라는 말을 사람들이 생활

<sup>4</sup> 윌터 J.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p. 58

속에서 ‘오래인지’ 로 바꿔 사용했고 이것을 과일 ‘오렌지’와의 동음이의어 라는 것을 착안하여 시를 쓴 것이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시적허용’에 의해 사용되었다.

5~8번 시도 마찬가지로 1연과 2연의 행과 운율을 매우 비슷하게 하여 입에 감기게 하는 효과와 시각적 미를 동시에 표현했다. 이것이 시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일종의 시적 장치인 것이다.

B. <sup>5</sup>인간의 생활세계에 밀착된다.

- 쓰기는 생활 경험에서의 지식을 구조화한다. 1~4번의 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과일 혹은 동물을 주제로 시를 썼다. 내용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5~8에 나온 시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황 혹은 가장 자주 접하는 사물을 주제로 잡았다. 그리고 짧게 운율을 맞춰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생활 세계에 밀접하게 시를 썼다. 즉, 과거의 시처럼 동떨어진 것이나 이상향을 그린 것이 아닌 모두가 실현 가능한 혹은 경험 가능한 것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C. <sup>6</sup>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이입적 또는 참여적이다.

- 1~8번 시 모두 화자와 시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시적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다. 객관적이기 보다 주관적이고 화자와 시가 일체화 된 것이다.

1~8번의 시는 위의 구술성과 더불어 현대의 문자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현대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즉각적이며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개방적인 공간이므로 모두가 접근이 용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장 혹은 글쓰기는 텍스트로 쓰여있지만 그 속에는 구술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 또한 텍스트를 사용할 때 제한적인 공간에 문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므로 구술적인 요소가 들어간

---

<sup>5</sup> 월터 J.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p. 71-72

<sup>6</sup> 월터 J.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p. 76-77

문장을 짧게 짧게 일상생활과 연관 된 것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즉, 월터 J.옹이 언급했던 것 처럼 ‘구술,청각언어가 문자언어에 비해 더 현실성이 있고 진정한 언어이며, 내면성을 향한 특별한 감각적 열쇠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을 상호 결합시키는 힘을 발휘하며, 어느 언어보다 인간의 사고와 강한 친밀성을 지닌다.’라는 말이 현대의 문자와 언어에서 드러난 것이다.

결론 :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책을 다시 읽어보았다. 자료를 옆에 두고 책을 읽으니 수업시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구술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 책에 의하면 구술성은 문학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선택한 장르가 바로 ‘시’였다. 가장 구술성이 많이 나타나있을 것 같은 장르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시’는 시인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분야의 작품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대상이었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에는 TV와 인터넷 등의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구술성과 문자성이 결합된 형태의 언어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시’를 현대인들은 현대의 관점에서 새로 분석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분야를 만들어냈다. 어떻게 보면 장난스러운 아이들 장난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4~8번의 시 같은 경우는 정식 책으로 출간 되었고, 저자는 라디오 혹은 TV에 출연하여 자신의 시를 설명하기도 하고 대학가 혹은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에서 자신의 시, 창의력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강연을 한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하나의 패러다임이 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20대 학생으로써 그동안 어렵게 느껴지고, 잘 접하지 않았던 시를 즐겁게,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가볍게 접한다는 점에서 제2의 구술성 시대가 반갑게 느껴지기도 한다.